

## 打撲에 의한 滑液囊腫의 治驗例

이수경 · 이용양 · 김영환 · 박원환\*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

### Abstract

#### Treatment Example of Bursitis Caused by Stroke

Soo-Kyeong Lee, Yong-Yang Lee, Young-hwan Kim, Won-Hwan Park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Received for publication March 17, 2010 ; accepted in revised form June 7, 2010

#### Background and Purpose :

By preventing diseases caused by exogenous evil, disorder of internal organs, and seven modes of emotions and adapting to mother nature when the mind is unsettled, and keeping the body and mind relaxed diseases can be avoided, but there can be unpredicted situations caused accidentally by stroke. Currently the general prescription is regulating the flow of vital energy including drugs eliminating blood stasis. Even though the stroke is resulted from diseases caused by exogenous evil, by observing the patient's physical appearance, essence of life, vital energy, and mental faculties which are believed to be the functions of the heart to clear the upper body and invigorate the functions of the spleen and stomach and purge with drugs of warm nature is a closer approach than simply prescribing vital energy regulating drugs with eliminating blood stasis to the main purpose of treatment.

#### Methods :

1) The subject of the study are 2 cases of patients who have visited the private hospital of the person who is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study. These patients have been given a diagnosis of edema or cystoma caused by bursitis in the knee joint through perception or medical examination and were waiting for operational application. 2) Sources related to stroke from Dong Eui Bo Gwam(東醫寶鑑) were used as the general standard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 an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has been given. 3) By observing the whole body such as the patient's usual physical appearance, essence of life, vital energy, and mental faculties which are believed to be the functions of the heart, or partly using the "Yin is even and well while Yang is firm" theory of "Plain Questions" as the background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clinical study.

---

\* 교신저자: 박원환 / 소속: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 054-770-2373 / E-mail : diapwh@dongguk.ac.kr or jindanhak@hanmail.net

### Results and Conclusion :

Generally the prescriptions from the first volume of Dong Eui Bo Gwam(東醫寶鑑) are mostly drugs eliminating stagnated blood including extravasated blood and the blood moving sluggishly in circulation or congested in a viscus, alleviating pain, invigorating blood circulation. Also prescriptions for bone fracture or fracture of bones and sinews are mostly to eradicate blood stasis with drastic drugs or coaptation drugs added to drugs eliminating stagnated blood including extravasated blood and the blood moving sluggishly in circulation or congested in a viscus, alleviating pain, invigorating vital energy, possessing warm properties for the Xue system.

### Key Words:

Stroke, Blood Stasis, Bursitis, Dong Eui Bo Gwam, Prescriptions

## I. 緒論

사람이 살아가면서 四時에 順應하여 春夏에 養陽하고 秋冬에 養陰하여 天理의 理致에 附合하여 人體를 保存하여 疾病없이 살아가는 것은 큰 幸福일 것이다. 1) 外感, 內傷, 七情을 그 때 마다 避하고, 2) 마음의 동요를 줄여 自然에 順應하며, 항상 몸과 마음을 安靜하면<sup>3)</sup> 疾病이 생겨나지 않을 것인데, 경우에 따라 예기치 못 한 不意의 사고로 打撲하여 外傷을 입는 경우가 있다.

現在까지 一般的 措處가 瘀血之劑를 비롯한 行氣之劑 爲主의 處置로 一貫 하여 왔다. 그런데, 外傷 打撲이라 하여도 平素 患者의 體形과 精氣神의 狀態 등을 살펴서, 淸上通中溫下로 調節 하는 것이 患

者를 보는데 있어서, 단순히 瘀血行氣之劑로 患處當處를 直接措處하는 것 보다 더 本治에 가깝다고 하겠다.

本論에서 다루어진 두 건의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膝關節 打撲 以後 一般的 措處 外의 素問理論을 바탕으로 措處한 結果 本 發表가 기존의 그것들과 다소의 차이가 比較된다.

最近 患者의 추세가 七情이 많이 수반되어져 있고, 精氣神의 活動이 制約을 많이 받으므로, 一般 打撲에서도 打撲의 後遺症이 많이 나타나며, 打撲時 精神的으로 驚恐에 露出되고, 氣血의 흐름에 鬱滯가 많이 發生하니, 단순히 傷處의 氣滯血凝 뿐 아니라 平素 患者의 體形과 精氣神을 살펴 全身的으로, 또 局所的으로 陰平陽秘하는 素問의 理論을 바탕으로 處置한 臨床 結果를 發表하고자 한다.

#### 1) 素問大要P25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秋冬養陰以從其根 故與萬物浸浮於生長之門逆其根則伐其本壞其眞矣 故陰陽四時者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道者聖人行 患者佩之

#### 2) 素問大要P18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虛邪賊風避之有時 (음) 愴虛無眞氣從之精神內守病安從來

#### 3) 素問大要P18

志閒而少欲心安而不懼形勞而不倦氣從以順各從其慾皆得所願----

## II. 研究方法

### 1) 研究對象

발표자의 개인의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양방 정형의 과에서 자각증상과 이학적 검사의 결과로 타박에 의한 슬관절 활액낭의 파괴로 부종, 낭종의 진단을 받아 수술

적용증으로 대기 중인 2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東醫寶鑑>의 타박관련 자료를 일반적 한의학의 잣대로 삼았다.
- 3) 서양의학적 관점은 수술적응증 환자의 치험 레이므로 정형외과의 진단을 근거 삼았다.
- 4) <東醫寶鑑>의 原文은 이해를 돕기위해 原文과 解釋을 整理하였다.

### III. 本 論

#### 1. 打撲傷의 一般의 所見

打撲傷은 흔히 나타나는 病症 中 하나인데, 原因은 打, 顛倒, 鈍 등에 의하여 發生된다. 이는 皮下上에 損傷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대개는 皮膚에 損傷이 없고, 皮下組織 혹은 다른 組織이 損傷해되어 皮下出血을 일으킨다. 처음에는 暗赤色 또는 暗青色을 띠며 차츰 綠色, 黃色 등으로 變하다가 없어 진다.甚하면 皮膚의 壞疽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筋肉이나 骨部에서도 出血이 되고 瘀血打撲에 의하여 出血되었던 것이 蓄積되어 心臟部를 刺戟한다.

一般的으로 診斷은 打撲後 發熱이 되는 수가 있으며, 이 熱이 繼續되어 化膿을 形成하기도 하는데, 혹은 驚悸, 意識昏迷, 氣血錯亂, 腹脹, 疼痛, 惡心, 煩悶 等 症이 수반되고, 全身을 잘 움직이지 못 하며 瘀血이 蓄積되어 있다. 堅強한 脈이 나오면 살 수 있으나, 小弱하면 治療가 어려우며 過多하게 失血을 하면 脈이 虛衰한 것이 당연하나 반면 疾, 大, 數 한 것은 죽는다. 打撲의 豫後는 比較的 良好하다. 嘔血이 그치지 않는다는가 內出血이 계속되거나 되었던 사람은 危險하다.4)

#### 2. 東醫寶鑑<sup>5)</sup>에서 打撲關聯 資料

##### 【癱撲墮落壓倒傷】

凡墮壓死者急安好處以袖掩其口鼻上一食頃候眼開先與熱小便飲之若初覺氣絕急擘開口以熱小便灌之利去瘀血<得效>○卒墮癱壓倒打死心頭溫者皆可救將本人如僧打坐令一人將其頭髮控放低以半夏末或皂角末吹入鼻內如活却以薑汁香油打勻灌之<綱目>○若取藥不及急抗開口以熱小便多灌之<入門>○人爲刀斧所傷或墮落險地或撲身體損傷筋骨皮肉皆出血不止或瘀血停積若去之不早則有入腹攻心之患<醫鑑>○跌撲傷損須用蘇木活血黃連降火白朮和中以童便煎服妙傷在上宜飲韭汁<丹心>○凡癱打壓傷或從高墮落皆驚動四肢五藏必有惡血在內專怕惡心先用通二便藥和童便服之立效大小腸俱通利則自無煩悶攻心之患矣<得效>○凡傷損專主血論肝主血不問何經所傷惡血必歸於肝流於脇鬱於腹而作脹痛實者下之宜通導散桃仁承氣湯(方見寒門)奪命散(方見上)虛者復元活血湯(方見上)當歸鬚散調之<入門>○凡出血已多而又嘔血不止者難治宜用蘇木煎湯調蚌霜散服之<入門>○諸傷疼痛宜乳香定痛散乳香散雙烏散尋痛元陣王丹補損當歸散<諸方>○蘇合香元治打撲墮落挾驚悸氣血錯亂昏迷不省急取三五丸溫酒童便調灌即甦(方見氣門)<得效>○頭上有傷或打破或金刀傷用藥糊角縛不使傷風慎之<得效>

[通導散] 治傷損極重大小便不通心腹脹悶宜用此下瘀血大黃芒硝各二錢當歸蘇木紅花桃仁各一錢厚朴陳皮木通枳殼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水煎空心服<醫鑑>○一名大成湯<醫林>

• [當歸鬚散] 治打撲損傷致氣凝血結胸腹脇痛當歸

4) 韓方外科. 高文社. 서울

5)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尾一錢半赤芍藥烏藥香附子蘇木各一錢紅花八分桃仁七分桂皮六分甘草五分右剉作一貼酒水相半煎服<入門>

- [蚌霜散] 治傷損大吐血蚌粉百草霜各等分右爲末每二錢糯米飲調服<入門>
- [乳香定痛散] 治諸傷損疼痛白芷當歸生苧牡丹皮赤芍藥川芎乳香沒藥白朮甘草各等分右爲末每二錢溫酒童便各半調勻服之<入門>○一名活血止痛散<醫鑑>
- [乳香散] 治打撲傷損痛不可忍白朮炒當歸炒白芷桂皮乳香沒藥甘草各等分右爲末每二錢溫酒調下<得效>
- [雙烏散] 治諸傷百損久後時常疼痛者及新被傷作痛亦宜川烏草烏略炮各三錢當歸白芍藥蘇木大黃生乾地黃紅麴炒各五錢麝香少許右爲末入瓦瓶以酒煮放冷服如覺麻痺無害但草烏生用恐太猛所以略炮<入門>
- [尋痛元] 治諸傷止痛清心行氣活血如神草烏生用乳香火熨沒藥火熨五靈脂各三錢生麝香少許右爲末酒糊丸如指頭大朱砂爲衣每一丸薄荷湯薑汁磨化服<得效>
- [陣玉丹] 治諸折傷止血定痛大黃一兩石灰六兩右同炒紫色爲度去火毒烏篩爲末敷傷處妙<入門>
- [補損當歸散] 治墮撲折傷疼痛叫號服此藥不復大痛三日筋骨相連川芎一兩半桂心川椒當歸甘草各七錢半附子炮澤蘭各二錢半右爲末每二錢溫酒調服效如神<局方>
- [打撲傷消腫滅癥] 凡鬪毆被打成破傷風頭面腫大發熱以九味羌活湯(方見寒門)熱服取汗外用杏仁搗爛入白麪少許新汲水調付瘡上腫卽消<回春>○治傷損腫痛瘀血流注紫黑或傷眼上青黑不散大黃爲末生薑汁調付患處卽消名將軍膏

<醫鑑>○散被毆癥痕亦治跌撲麻油清酒各一椀同煎數沸服之服了臥火燒熱地上一夜痛止腫消無痕有被傷者仇家陰令術士以此治之

- 次日驗審了無一毫傷痕<回春>○打撲傷肌膚青腫茄子種通黃極大者切作片瓦上焙乾爲末臨臥酒調二錢服一夜消盡無痕<聖惠>6)

넘어졌거나 얻어맞았거나 떨어졌거나 깔리어 상한 것. 떨어졌거나 깔리어서 죽을 것같이 되었을 때에는 빨리 편안한 곳에 눕히고 입과 코를 천으로 덮어주고 밥 한끼 먹을 동안만큼 있으면 눈을 뜬다. 이때에 먼저 구급약을 먹인다. 기절한 초기에 빨리 입을 벌리고 구급하여 소변을 더 넣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설사로 곶은 피가 나간다[득효].

- 갑자기 떨어졌거나 넘어졌거나 깔렸거나 얻어맞아서 죽은 것같이 되었으나 명치 끝이 따듯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상한 사람을 다리를 포개어 앉히고 한 사람이 그의 머리를 잡아서 뒤로 젖힌 다음 반하가루나 조각가루를 코 안에 붙여 넣어주면 살아나는데 이때에 곧 생강즙과 참기름을 한데 타서 입에 떠 넣어주어야 한다[강목].
- 다른 사람의 칼이나 도끼에 상하였거나 험한 곳에 떨어져 상하였거나 얻어맞아 힘줄과 뼈, 피부와 살이 상하여 피가 멎지 않고 나오면서 혹 어혈이 몰려서 적(積)이 된 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 심(心)에 침범할 수 있다[의감].
- 넘어져서 상한 때에는 반드시 蘇木으로 피를 잘 돌아가게 하고 黃連으로 화를 내리우며 白朮로 속을 고르게 해야 하는데 물에 달여 먹으면 좋다. 윗도리를 상하였을 때에는 葦汁을 마시는 것이 좋다[단심].
- 넘어졌거나 얻어맞았거나 깔리었거나 높은 곳에서 떨

어저 상하면서 팔다리와 5장이 놀라게 되면 반드시  
 곳은 피가 속에 생기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메스메스해질 것이 우려되는데 이런 때에는 먼저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을 물에 타서 먹이면  
 곧 낫는다. 대소변이 잘 나오면 안타깝게 답답해지  
 거나 심이 침범당할 우려가 없다[득효].

- 모든 외상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를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간(肝)이 피를 주관하므로 어느 經이  
 상하였는가는 물어 볼 것이 없다. 곳은 피는 반드시  
 간을 돌아 옆구리를 걸쳐서 배로 몰리므로 배가 불  
 러 오르고 아프다. 이때에 實하면 설사시켜야 하는  
 데 통도산, 桃仁承氣湯, 탈명산을 쓰는 것이 좋다.  
 虛하면 復元活血湯, 당귀수산으로 조리해야 한다  
 [입문].
- 이미 피가 많이 나왔거나 피를 토하는 것이 몇지  
 않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이런 때는 소목을 달인  
 물에 방상산을 타서 먹는 것이 좋다[입문].
- 여러 가지 상처가 아픈 데는 유향정통산, 유향산,  
 쌍오산, 심통원, 진왕단, 보손당귀산 등을 쓰는 것이  
 좋다[제방].
- 蘇合香元은 언어맛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氣血이 헛갈려서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쓰는데 빨리  
 3-5알을 데운 술에 풀어 떠 넣어주면 곧 깨어난다  
 [득효].
- 머리가 맞아 터졌거나 날이 선 쇠붙이에 상하였을  
 때에는 약풀[藥糊角]을 바른 다음 상처를 보호하도  
 록 무엇을 대고 싸매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득효].

通導散

외상이 몹시 중(重)하여 대소변이 나오지 못하고  
 명치 밑이 불러 오르며 답답한 것을 치료하는데 설사로

어혈이 나가게 한다. 망초 각각 8g, 당귀, 소목, 홍화,  
 도인 각각 4g, 후박, 陳皮, 목통, 지각, 감초 각각 2g.  
 위의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서 빈속에  
 먹는다[의감].

일명 大成湯이라고도 한다[의림].

當歸鬚散

타박(打撲)을 받아 상하여 기와 혈이 몰려서 가슴  
 과 배, 옆구리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당귀미 6g, 작약, 오약, 향부자, 소목 각각 4g, 홍화  
 3.2g, 도인 2.8g, 2.4g, 감초 2g.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술과 물을 절반씩  
 섞은 데 넣고 달여 먹는다[입문].

蚌霜散

외상으로 피를 많이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방분,  
 백초상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한번에 8g씩 찹쌀미음에 타  
 서 먹는다[입문].

乳香定痛散

여러 가지로 상한 것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백지, 당귀, 생지황, 목단피, 적작약, 천궁, 유향, 몰  
 약, 백출, 감초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번에 8g씩 데운 술과 물을  
 절반씩 섞은 데 타서 먹는다[입문].

- 일명 活血止痛散이라고도 한다[의감].

乳香散

打撲을 받아 상하여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백출, 당귀, 백지, 계피, 유향, 몰약, 감초 각각 같은 양.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번에 8g씩 데운 술에 타서  
 먹는다[득효].

雙鳥散

여러 가지로 상한 것이 오래되어 때때로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갖 상해서 아픈 데도 좋다.

초오, 천오 각각 12g, 당귀, 백작약, 소목, 대황, 생건지황, 홍곡 각각 20g, 사향 소량.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사기병에 술과 함께 넣어 끓여서 식혀 먹는다. 먹은 다음 저린감이 있어도 괜찮다. 만약 초오를 생것으로 쓰면 약기운이 지나치게 셀 우려가 있으므로 써서 약간 구워 써야 한다[입문].

尋痛元

여러 가지로 상한 것을 치료한다. 아픈 것을 멎게 하고 속을 시원하게 하며 기와 혈을 잘 돌게 하는데 아주 좋다.

초오, 유향, 몰약, 오령지 각각 12g, 사향 조금.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술에 쓴 풀에 반죽해서 손가락 끝만하게 알약을 만들어 곁에 주사를 입힌다. 한번에 1알씩 박하 달인 물을 탄 생강즙에 풀어서 먹는다[득효].

陣王丹

여러 가지로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는데 피를 멎게 하고 아픈 것을 없앤다.

대황 40g, 석회 240g.

위의 약들을 함께 자춧빛이 나도록 닦아 화독(火毒)을 빼고 가루내어 상처에 뿌리면 좋다[입문].

補損當歸散

떨어졌거나 얻어맞아서 뼈가 부러져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이 약을 먹으면 다시는 몹시 아프지 않고 3일이 지나서 힘줄과 뼈가 붙게 된다.

천궁 60g, 계심, 천초, 당귀, 감초 각각 30g, 부자, 택란 각각 10g.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한번에 8g씩 데운 술에 타서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국방].

타박을 받아 부은 것을 내리고 흠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打撲傷消腫滅癢]

싸움하다가 얻어맞아서 破傷風이 생겨 머리와 얼굴이 붓고 열이 몹시 나는 데는 九味姜活湯을 달여서 따끈하게 하여 먹고 땀을 낸다. 다음 행인을 짓쫓어 흰밀가루를 조금 섞어서 새로 길어온 물에 개어 상처에 붙이면 부은 것이 곧 내린다[회춘].

- 외상으로 붓고 아프며 어혈이 몰린 것이 돌아다니서 검붉어진 것과 상하여 눈두덩이가 검푸르게 된 것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황을 가루 내서 생강즙에 개어 상처에 붙이면 곧 식는다. 이것을 將軍膏라고 한다[의감].
- 상처의 흠집을 없애고 넘어져 상한 것을 치료하는 데는 참기름과 청주 각각 1사발씩 섞어 두어 번 끓여오르게 달여 먹는다. 그 다음 뜨거운 데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픈 것이 멎고 부은 것이 내리며 흠집이 없어진다. 어떤 사람이 얻어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남몰래 의사를 시켜서 이 방법으로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상한 데가 조금도 없어 나왔다[회춘].
- 누르고 큰 가지를 쪽지게 썰어서 기왓장 위에 놓고 약한 불기운에 말린 다음 가루내서 한번에 8g씩 잠 잘 무렵에 술에 타서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다 삭고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성해].

【脈候及不治證】

凡打撲損傷內有瘀血其脈堅强者生小弱者死<脈經>○打撲傷損去血過多脉當虛細若得急疾大數者死<醫鑑>○凡折傷外損筋骨者可治內損藏府裏膜及破陰子耳後者並不治(與上十不治證參看)<入門>○如傷藏府致命處一觀其脈虛促危矣<得效>7)

맥과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

타박을 받아 속에 어혈이 생겼을 때 맥이 견강(堅強)하면 살고 맥이 소약(小弱)하면 죽을 수 있다[맥경].

- 타박을 받아 상하여 피가 많이 나온 때에는 반드시 맥이 허세(虛細)해야 하는데 만일 맥이 급질(急疾)하면서 몹시 삭(數)하면 죽을 수 있다[의감].
- 타박을 받아 겉으로 힘줄과 뼈가 상한 것은 치료할 수 있고 속으로 장부(藏府) 안의 막이 상한 것과 고환과 귀 뒤가 터진 것은 다 치료하기 어렵다. 위의 10가지 치료하기 어려운증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입문].
- 만일 장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했을 때에는 맥(脈)을 보아야 하는데 허(虛)하면서 축(促)하면 위험하다[득효].

單方

凡十七種

- [蒲黃] 治撲損瘀血在內煩悶蒲黃末三錢熱酒調下<得效>
- [白楊樹皮] 治撲損瘀血痛不可忍取樹皮酒漬服之<本草>
- [生龜] 治撲損蹠折取血和酒飲之肉生研厚塗傷處立效<本草>
- [鱉螯] 主打撲蹠折血在脇下堅滿痛取汁和酒服又研付傷處<本草>
- [鼠屎] 治落傷筋骨痛不可忍取屎燒爲末猪脂調急裹之不過半日愈<本草>
- [荷葉] 治打撲落傷惡血攻心悶亂乾葉燒爲末熟童尿調下二錢日三〇未展荷葉爲末童便調服利下惡物<綱目>

- [胡桃] 壓撲傷損胡桃肉搗爛和溫酒頓服便差<本草>
- [麻根] 打撲落傷蹠折有瘀血痛不可忍取根及葉搗取汁飲或煮服之非時則取乾麻煮汁飲<本草>
- [稻稈灰] 治墮落撲損痛楚稻稈燒灰和糟酒林灰取汁乘溫淋洗痛處立差<本草>
- [芥子] 撲損瘀血作痛芥子和生薑研微煖塗貼患處卽效<本草>
- [葱白] 治打撲傷損痛不可忍取葱白入燂火煨乘熱擘開其中有沸便將蹠損處冷則易熱者須臾痛定<本草>〇又葱白砂糖等分爛研付之痛立止且無癍痕<丹心>
- [人尿] 主撲損落傷瘀血攻心暈絕熱尿頓服一二升卽甦童子尿尤佳<本草>
- [烏鷄] 被壓窄墮舟船車轢馬踢牛觸胸腹破陷四肢摧折氣悶欲死烏鷄一隻合毛杵一千下和苦酒一升得所以新布搗病處取藥塗布上罨定乾則易覺寒振欲吐不可去藥須臾復上一鷄神效<本草>
- [烏鴉羽] 治墮落損傷瘀血脹心面青氣短取右翅羽七枚燒灰和酒服當吐血便差<本草>
- [犬膽] 治撲損刀箭傷內有瘀血取膽熱酒調服瘀血盡下<本草>〇犬屎燒存性爲末熱酒調下二三錢亦有奇效<俗方>
- [酒糟] 主打撲墮落損傷瘀血腫痛酒糟和醋滓蒸溫熨之妙<俗方>
- [水蛭] 主墮撲落傷折傷內有瘀血水蛭炒焦爲末入麝香少許每一錢熱酒調服當下瘀血<本草>

단방(單方)

蒲黃 타박을 받아 속에 어혈이 생겨서 안타깝게 답답한 것을 치료하는데 한번에 12g씩 따끈한 술에 타서 먹는다[득효].

白楊樹皮 타박을 받아 어혈이 생겨서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술에 우려서 먹는다[본초].

生龜 타박을 받아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는데 피를 받아 술에 타서 마시고 고기는 생으로 갈아서 상처에 두텁게 붙이면 곧 낫는다[본초].

鱗鱗 굽벱이 타박을 받아 발목이 부러지고 어혈이 옆구리에 몰려서 튼튼하고 그득하면서 아픈데 주로 쓴다. 즙을 내어 술에 타서 먹고 또 갈아서 상처에 붙인다[본초].

鼠屎 떨어져서 힘줄과 뼈가 상하여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태위 가루내서 돼지기름에 개어 상처에 바르고 빨리 싸매면 한나절이 못 되어 낫는다 [본초].

荷葉 연잎 얻어맞았거나 떨어져 상하여 곪은 피가 심(心)으로 치밀어 올라 답답해서 날치늪[悶亂] 데는 마른 잎을 태워 가루내어 한번에 8g씩 뜨거운 물에 타서 하루 3번 먹는다.

• 피지 않은 연잎을 가루내어 물에 타 먹으면 설사로 곪은 물[惡物]이 나간다[강목].

胡桃 깔렸거나 얻어맞아 상한 것은 호두살을 잘 짓쪼여 데운 술에 타서 단번에 먹으면 곧 낫는다[본초].

麻根 얻어맞았거나 떨어져 상하여 발목이 부러지고 어혈이 생겨 참을 수 없이 아픈데 주로 쓴다. 뿌리와 잎을 짓쪼여 즙을 내어 마시거나 달여 먹는다. 퍼런 삼이 없는 철에는 마른 삼을 달여서 그 물을 먹는다[본초].

稻稈灰 떨어졌거나 다쳐서 몹시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태위 재를 내어 거르지 않은 술에 탄 다음 잣물을 받아 따뜻하게 하여 아픈 곳을 씻으면 곧 낫는다[본초].

芥子 타박을 받아 어혈이 생겨 아픈 데는 생강과 함께 짓쪼여 약간 따뜻하게 하여 상처에 붙이면 곧 낫는다[본초].

葱白 타박을 받아 참을 수 없이 아픈 데는 과밀을 뜨거운 재 속에 묻어 더워진 다음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즙을 상처에 붙인다. 식으면 더운 것으로 바꾸어 붙여야 잠시 후에 아픈 것이 멎는다[본초].

• 또는 과밀과 사탕가루를 같은 양으로 하여 짓쪼여 상처에 붙이면 아픈 것이 곧 멎고 흠집도 생기지 않는다[단심].

烏鷄 깔리었거나 떨어졌거나 배 또는 수레에 찍히었거나 말한테 채었거나 소한테 받히어 가슴과 배가 상하고 팔다리뼈가 부러져서 숨쉬기 답답하고 죽을 것같이 되었을 때에는 1마리를 털채로 천 여 번 짓쪼여 식초 1되에 넣고 알맞게 버무려 쓰는데 새 천을 상처에 덮고 그 위에 이것을 붙이고 잘 싸맨다. 마르면 갈아 붙이되 추우면서 떨리거나 게을 것같이 되어도 약을 떼버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게 1마리를 위의 疫瑯泡같이 하여 붙이면 잘 낫는다 [본초].

烏鴉羽 떨어져 상하여 어혈이 생겨 명치 밑이 불러 오르고 얼굴이 퍼렇게 되며 숨이 찬 것을 치료한다. 오른쪽 것 7개를 빼서 태위 가루내어 술에 타 먹는다. 그러면 피를 토하고 곧 낫는다[본초].

犬膽, 타박을 받았거나 칼이나 화살에 상하여 속에 어혈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술에 타서 먹으면 어혈이 다 빠진다[본초].

酒糟, 술지게미 타박을 받았거나 떨어져 상하여 어혈이 생겨서 붓고 아픈데 주로 쓴다. 식초에 타서 따뜻하게 찼 것으로 찜질하면 곧 낫는다[속방].

水蛭 얻어맞았거나 떨어졌거나 부러져서 속에 어혈이 생긴데 주로 쓴다. 炒焦 가루내어 시향 조금과 섞어서 한번에 4g씩 따끈한 술에 타 먹으면 어혈이 풀린다 [본초].

#### 【骨折筋斷傷】

凡脚手各有六出曰四折骨每手有三處出曰脚亦三處出曰手掌根出曰其骨交互相鎖或出曰則是挫出鎖骨之外須是擗骨於鎖骨下歸窠若出外則須擗入內若出內則須擗入外方入窠曰只用手拽斷難入



窠十有八九成痼疾也<得效>○骨節損折肘臂腰膝出臼蹉跌須用法整頓歸元先用麻藥與服使不知痛然後可用手法<得效>○搦骨歸窠用竹一片(生柳木板片尤佳)夾定一邊一邊不用夾須存屈直處時時拽屈拽直不然則愈後曲直一得<得效>○凡骨碎者須用麻藥(即草烏散)與服或用刀割開甚者用剪剪去骨鋒使不衝破肉或有粉碎者與去細骨免膿血之禍且以藥水一日一洗莫令臭穢<得效>○凡骨碎者用接骨藥火上化開糊骨上然後夾定外用夾骨法活血散接骨丹二生膏糯米膏內服麥斗散沒藥降聖丹接骨散自然銅散接骨紫金丹○淋洗用蔓荊散<諸方>

- [草烏散] 即麻藥也凡骨節出臼用此麻之然後用手整頓皂角木鱉子紫金皮白芷半夏烏藥當歸川芎川烏各一兩二錢半草烏茴香坐拏草各二錢半木香一錢並無煨製右爲末諸樣骨節出臼窠者每服二錢好紅酒調下麻倒不識痛處然後或刀割開或剪去骨鋒以手整頓骨節歸原用夾夾定然後醫治如箭鏃入骨不出亦用此藥麻後或鉗出或鑿開取出然後取鹽湯或鹽水與服立醒<得效>8)
- [夾骨法] 小蝦蟆四五箇皮硝三分生薑一兩酒糟一碗腫者加紅內消(即紅何首烏也)同搗敷折傷之處<入門>
- [活血散] 治折傷菉豆粉炒紫色新汲水調成膏厚付折傷處以桑皮夾定其效如神一方熱酒醋調付<得效>
- [接骨丹] 當歸七錢半川芎沒藥骨碎補各五錢川烏煨四錢古文錢三箇火煨醋淬七次乳香二錢半木香一錢黃香(松脂也)六兩香油一兩半右爲末和油成膏攤油紙貼患處如骨碎筋斷用此復續如初<回春>
- [二生膏] 治折傷手足生地黃一斤生薑四兩右搗

爛入酒糟一斤炒熟布裹罨傷處熨之傷筋損骨痛不可忍神效<醫鑑>○傷損臂白脫出腫痛生地黃搗爛攤油紙上次糝木香末一層又攤地黃貼患處明目痛即止<得效>○治折傷斷筋損骨生地黃搗取汁好酒和服日二三次最妙又搗爛蒸熱封傷處一月筋骨連續蓋地黃屬骨<種杏>

- [糯米膏] 治撲傷筋斷骨折糯米一升皂角切碎半升銅錢百箇同炒至焦黑去錢右爲末酒調膏貼患處神效<綱目>
- [麥斗散] 治跌傷骨節土鱉一箇瓦上焙巴豆一箇去殼半夏一箇生乳香沒藥各半分自然銅火煨醋淬七次用些少右爲末末溫清酒調服一釐如重車行十里之久其骨接之有聲初跌之時須整理如舊以綿衣蓋覆方服藥勿轉動端午日製尤妙<回春>
- [沒藥降聖丹] 治打撲閃筋斷骨折痛不可忍生乾地黃川芎各一錢半自然銅火煨醋淬十二次另研川烏生骨碎補白芍藥當歸乳香沒藥各一錢右爲末薑汁與蜜等分和勻每一兩作四丸每服一丸水酒各半盞入蘇木一錢同煎去蘇木調藥空心熱服<丹心>
- [接骨散] 治骨折乳香沒藥各二錢半自然銅煨碎另研五錢滑石一兩龍骨赤石脂各一錢半麝香少許右爲末好醋浸潤煮乾炒燥爲末臨睡服時入麝香和勻溫酒調下一錢若骨已接去龍骨赤石脂而服極效<丹心>○一方將藥除麝香浸酒煮乾爲末黃蠟五錢熔化乃入麝香和勻作丸彈子大每一丸酒煎以東南柳枝攪散空心熱服名曰接骨丹<入門>
- [自然銅散] 治打撲筋骨折傷乳香沒藥蘇木降真香(無則紫檀代之)川烏松明節自然銅火煨醋淬七次各五錢地龍油炒龍骨生水蛭油炒焦各二錢半血竭一錢半土狗五箇油浸焙右爲末每五錢好酒調下自頂心尋病至下兩手兩足周遍一身病人自覺藥力習習往來遇病處則颯颯有聲<得效>

- [接骨紫金丹] 治跌打骨折瘀血攻心發熱昏暈土蠶(一方用土狗)自然銅火煨醋淬七次另研骨碎補血竭大黃當歸尾乳香沒藥鵬砂各一錢右爲末每取八釐熱酒調服其骨自接<入門>
- [蔓荊散] 治打落筋骨折傷瘀血結痛頑荊葉(無則荊芥代之)蔓荊子白芷細辛防風川芎桂皮丁香皮羌活各一兩右爲末每一兩入鹽一匙連鬚葱白五莖漿水五升煎七沸淋洗痛處冷則易<丹心>

### 【單方】

凡十四種

- [赤銅屑] 治打撲墮落骨折傷取赤銅火煨醋淬七次或九次細研溫酒調一字或半錢服直入骨損處銼之○有人墮馬折足取銅末和酒服遂痊亡後十餘年改葬視脛骨折處有銅束之<本草>
- [自然銅] 療傷損骨折火煨醋淬七次研細水飛同當歸沒藥各半錢溫酒調服仍以手摩痛處<本草>  
○此藥新火煨者有毒若不折骨不碎骨則不可用自然銅<丹心>
- [合歡皮] 主骨折專能接骨取皮炒黑色四兩芥子炒一兩右末酒調二錢服以滓罨傷處<丹心>
- [生地黄] 主屬骨若傷損骨碎生地黄爛搗蒸熱裹傷處日再易<本草>
- [續斷] 治撲損瘀血能續筋骨煮汁內服外搗付之<本草>
- [旋菖根] 卽旋花根也療被斫筋斷取根搗汁瀝瘡中以滓封瘡上日二三易筋便續<本草>
- [白蠟] 屬金稟收斂堅凝之氣外科之要藥生肌止血定痛接骨續筋補虛與合歡皮同用極神效<丹心>
- [蟹] 脚中髓及腦并殼中黃並能續斷折筋骨取碎之微蒸納瘡中筋卽連○筋骨折傷生搗炒罨良<本草>
- [螻蛄] 療蹠折骨破血結取汁和酒服又搗付傷處<本草>
- [人中白] 治閃挫跌撲傷骨極重人中白煨爲末溫酒調五分服<入門>
- [牡鼠] 療折傷筋骨生搗付傷處三日一易新能續筋骨<本草>
- [生栗] 主筋骨折碎血瘀腫痛細嚼生栗塗付之栗楔尤好三箇共一窠居中者<本草>
- [菖苳子] 主打落折傷取子微炒爲末酒服二三錢能接續筋骨名接骨散<回春>
- [烏雄鷄] 主蹠折骨傷骨痛取血和酒服仍破腹罨傷處妙<本草>○又取骨末一兩自然銅末四錢和勻溫酒調下二錢空心<綱目>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진 것[骨折筋斷傷]

다리와 팔에는 각기 뼈마디가 어긋날 수 있는 곳이 6곳이고 부러질 수 있는 곳이 4곳이다. 손에는 어긋날 수 있는 곳이 3곳이고 발에도 또한 3곳이다. 손바닥 뒤의 뼈마디가 어긋나면 그곳의 뼈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뼈가 밖으로 빠져 나온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빠져 나온 뼈를 손으로 만져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만약 바깥쪽으로 나왔으면 안쪽으로 밀어 넣고 안쪽으로 나왔으면 바깥쪽으로 밀어 넣어야 제자리로 들어간다. 오직 손으로 당겨서 제자리에 넣으려고만 한다면 들어맞추기 아주 어렵고 10명에 8-9명은 병신이 된다[특효].

- 뼈마디가 다쳐서 부러졌거나 팔뚝, 허리, 무릎의 뼈마디가 어긋났을 때에는 제자리에 잘 맞추어 놓되 우선 마취약을 먹여 아픈 것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맞추어야 한다[특효].
- 뼈마디가 어긋났을 때에는 뼈를 손으로 만져서 제자리에 맞추어 놓은 다음 참대쪽을 한쪽 옆에만 대고 한쪽 옆에는 대지 않고 동여매어 곱혔다 폼다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때때로 당겨주고 곱혔다 폼다 하게 해야 한다[특효].

-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은 다음에 구부러졌거나 편 채로 있게 된다[득효].
- 뼈가 부스러졌으면 마취약(즉 초오산)을 먹인 뒤에 칼로 쪼거나 심하면 가위로 뼈 끝을 잘라서 그것이 살을 뚫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혹 부스러진 뼈가 있으면 그 뼈를 뽑아 내서 굽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1번씩 약물로 씻어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득효].
- 뼈가 부스러졌을 때에는 접골약을 불에 녹여 그 뼈 위에 바른 다음 나무쪽을 대고 동여맨다. 그 다음 길으로는 협골법과 활혈산, 접골단, 이생고, 나미고를 쓰고 먹는약으로는 맥두산, 몰약강성산, 접골산, 자연동산, 접골자금단을 써야 한다.
- 씻는 약으로는 만형산을 써야 한다[제방].  
草烏散 이것이 바로 마취약이다. 뼈마디가 어긋났을 때에는 이 약을 써서 마취시킨 다음 손으로 만져서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방법을 써야 한다.  
조협, 목별자, 자금피, 백지, 반하, 오약, 당귀, 천궁, 천오 각각 50g, 초오, 회향, 좌나초 각각 10g, 목향 4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쓴다. 뼈마디가 어긋났을 때에는 한번에 8g씩 좋은 홍주(紅酒)에 타서 마신 다음 마취되어 아픈 것을 모르게 된 뒤에 칼로 쪼거나 가위로 뾰족한 뼈를 잘라내야 한다. 그 다음 손으로 뼈마디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어야 한다. 그리고 참대쪽을 대고 잘 동여매야 한다. 만일 화살촉이 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때에도 이 약을 써서 마취시킨 다음 집어서 빼내거나 쪼 헤치고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 끓인 소금물이나 소금을 탄 물을 먹이면 곧 깨어난다[득효].

夾骨法

하마 4-5마리를 피초 1.2g, 생강 40g, 술지게미(주조) 1사발을 쓰는데, 부은 데가 있으면 하수오를 더 넣어 쓴다. 이것을 모두 한데 넣고 짓찜어 상처에 붙인

대[입문].

活血散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녹두가루.

위의 것을 벌겍게 되도록 닦아 새로 길어온 물에 개서 고약처럼 만들어 상처에 두텁게 붙인 다음 상백피을 대고 동여맨다.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뜨거운 술과 식초를 섞은 데 넣고 반죽하여 붙이는 것이다[득효].

接骨丹

당귀 30g, 천궁, 몰약, 골쇄보 각각 20g, 천오 16g, 고문전 3개, 유향 10g, 목향 4g, 황향(송진) 240g, 참기름 60g.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기름에 개서 고약을 만든 다음 기름종이에 발라 상처에 붙인다. 만일 뼈가 부스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는데 이 약을 쓰면 다시 이어져 치음과 같이 된다[회춘].

二生膏

팔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600g, 생강 160g.

위의 약들을 잘 짓찜어 술지게미(酒糟) 600g과 섞은 다음 뜨겁게 볶아 베천에 싸서 상처에 대고 찜질하면 힘줄과 뼈가 상하여 참을 수 없이 아프던 것도 효과를 본다[의감].

- 팔의 뼈마디가 어긋나서 붓고 아픈 데는 생지황을 짓찜어 쓰는데 기름종이 위에 피놓고 목향가루를 한 벌[一層] 뿌린 다음 그 위에 또 생지황 짓은 것을 피놓아 상처에 붙이면 이튿날 아픈 것이 곧 멎는다[득효].
- 타박을 받아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상한 데는 생지황을 짓찜어 즙을 내어 쓰는데 좋은 술에 타서 하루

2-3번 먹으면 잘 낫는다. 또는 생지황을 짓쪼개 뜨겁게 찌서 상처에 붙이면 한 달 사이에 힘줄과 뼈가 이어진다. 왜냐하면 지황은 뼈와 관련된 약이기 때문이다[중행].

#### 糯米膏

타박을 받아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참살 1되, 조각 반되, 동전 100개.

위의 약들을 다 한데 넣고 눈도록 닦아서 돈[錢]은 가려내고 가루 낸 다음 술에 개서 고약을 만들어 상처에 붙이면 잘 낫는다[강목].

#### 麥斗散

넘어져서 뼈마디가 상한 것을 치료한다.

자충(기와 위에 놓아서 약한 불기운에 말린 것) 1개, 파두 1개, 반하, 생지 1개, 유향, 몰약 각각 0.2g, 자연동 조금.

위의 약들을 보드랍게 가루내어 0.04g씩 따뜻한 청주에 타서 먹고 무거운 수레가 10리 갈 동안만큼 있으면 뼈가 이어지는 소리가 난다. 넘어져서 부러진 초기에는 반드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고 솜옷으로 싸 덮은 다음 맥두산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맥두산은 단오날에 만든 것이 더 좋다[회춘].

#### 沒藥降聖丹

타박을 받았거나 접질려서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스러져서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생건지황, 천궁 각각 6g, 자연동, 천오, 골쇄보, 백작약, 당귀, 유향, 몰약 각각 4g.

위의 약들을 가루내서 생강즙과 꿀을 같은 양으로 하여 섞은 데 넣고 고루 반죽한 다음 40g으로 알약 4알씩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쓰되 술과 물을 각각 반

잔씩 섞은데 소목 4g을 넣고 달여 소목은 버린 물에 풀어 빈 속에 따끈하게 하여 먹는다[단심].

#### 接骨散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유향, 몰약 각각 10g, 자연동 20g, 활석 40g, 용골, 적석지 각각 6g, 사향 조금.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좋은 식초에 담가 불린다. 이것을 볶아 말려 다시 가루낸다. 한번에 4g씩 사향과 고루 섞어서 잠잘 무렵에 데운 술에 타 먹는다. 만일 뼈가 이미 이어졌으면 용골과 적석지를 빼고 쓰는 것이 아주 좋다[단심].

• 또 한 가지 처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약들에서 사향은 내놓고 술에 담갔다가 달여서 말려 가루낸다. 다음 녹인 황랍 20g에 사향과 같이 넣고 반죽하여 달걀 노른자위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쓰는데 술에 넣고 졸이면서 동남쪽으로 뺀었던 버드나무가지로 저어서 풀어지게 한 다음 따끈하게 하여 빈속에 먹는다. 이것을 接骨丹 이라고 한다[입문]. 自然銅散 타박을 받아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유향, 몰약, 소목, 강진향(없으면 대신 자단향을 쓴다), 천오, 송절, 자연동 각각 20g, 지룡, 용골, 수질 각각 10g, 혈갈 6g, 누고 5개.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한번에 20g씩 좋은 술에 타서 먹으면 약기운이 정수리로부터 점차 병이 있는 곳을 찾아 아래로 양손과 양발까지 내려가므로 온 몸에 스물스물하는 느낌이 있다. 이것은 환자 자신이 느끼게 되는데 약기운이 병 있는 곳에 닿으면 ‘씩’ 하는 소리가 나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득효].

#### 接骨紫金丹

타박을 받아 뼈가 부러지고 어혈이 생겨 심(心)을

침범해서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진 것을 치료한다.

자충(어떤 처방에는 도루래로 되어있다), 자연동, 골쇄보, 대황, 혈갈, 당귀미, 유향, 몰약, 봉사 각각 4g.

위의 약들을 가루내어 한번에 0.32g씩 따끈한 술에 타서 먹으면 뼈가 저절로 붙는다[입문].

蔓荊散

타박을 받았거나 떨어져서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어혈이 몰려 아픈 것을 치료한다.

완형엽(없으면 대신 형개를 쓴다), 만형자, 백지, 세신, 방풍, 천궁, 계피, 정향피, 강활 각각 40g.

위의 약들을 거칠게 가루내어 한번에 40g씩 소금 1숟가락, 총백 5대와 함께 신즙쌀죽웃물 5되를 넣고 7번 끓여오르게 달여서 아픈 곳을 씻는다. 식으면 더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단심].

단방(單方)

赤銅屑, 구리가루

타박을 받았거나 떨어져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구리를 불에 달구었다가 식초에 담그기를 7-9번 하여 보드랍게 가루내서 한번에 1-2g씩 데운 술에 타서 먹으면 약이 상한 뼈로 곧추 들어가 붙게 된다.

- 어떤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정강이가 부러졌을 때 구리가루를 술에 타서 먹고 나왔다. 그런데 늙어서 죽은 후 10여 년만에 옮겨 묻으면서 그 정강이뼈를 보니 부러졌던 자리에 구리테가 감겨 있었다고 한다[본초].

自然銅, 산골 상하여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한다. 산골, 당귀, 몰약 각각 2g을 가루내어 데운 술에 타서 먹고 곧 아픈 곳을 쓰다듬는다[본초].

- 이 약이 금방 불에 달구었을 때에는 독이 있다. 만일 뼈가 부러지지도 부스러지지도 않았을 때에는 산골

을 쓰지 말아야 한다[단심].

合歡皮, 자귀나무껍질 주로 뼈가 부러진 것을 잘 붙게 하는 약이다. 자귀나무껍질(검은 빛이 나도록 볶은 것) 160g, 백겨자 40g을 가루내어 한번에 8g씩 술에 타서 먹고 찌꺼기는 상처에 붙인다[단심].

生地黃 주로 뼈와 관련된 약이다. 상하여 뼈가 부스러졌을 때에는 3748; 생지황을 짓찧어 뜨겁게 썰서 상처에 하루 2번 갈아 싸맨다[본초].

續斷 타박을 받아 생긴 어혈을 치료하는데 힘줄이나 뼈도 잘 붙게 한다. 달여서 즙을 내어 마시고 곁에는 짓찧어 붙인다[본초].

선복근 즉 선퇴근(旋花根)이다. 연장에 찍혀 힘줄이 끊어진 것을 치료하는데 짓찧어 즙을 내서 상처에 바르고 찌꺼기를 붙인다. 하루 2-3번 갈아 붙이면 힘줄이 곧 이어진다[본초].

白蠟 금(金)에 속하는 약인데 수렴하는 성질이 있고 굳으면 영키게 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외과에서 긴요하게 쓰는 약이다. 새살을 살아나게 하고 피를 멎게 하며 아픈 것을 없애고 뼈나 힘줄을 붙게 하며 허한 것을 보하는데 合歡皮와 같이 쓰면 효과가 좋다[단심].

蟹, 게다리 속의 살과 계장은 다 뼈나 힘줄을 잘 붙게 하는데 짓찧어 약간 닦아서 상처 속에 넣으면 힘줄이 곧 이어지게 된다.

-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진 데는 생것을 짓찧어 볶아서 붙이면 좋다[본초].

鱗鱗 굼벵이 빗디디어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는데 어혈도 푼다. 즙을 내서 술에 타 먹고 또 짓찧어 상처에 붙인다[본초].

牡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진 것을 치료하는데 짓찧어 상처에 붙인다. 3일에 1번씩 새 것으로 갈아 붙이면 힘줄과 뼈가 붙게 된다[본초].

生栗 주로 힘줄이 상하고 뼈가 부러지고 어혈이 생겨서 부으며 아픈데 쓴다. 생밤을 잘 씹어서 상처에

붙인다. 가운데 알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즉 3알이 든 밤송이에서 가운데 알을 말한다[본초].

와거자 주로 타박을 받았거나 떨어져 뼈가 부러진 데 쓴다. 부루씨를 약간 닦아서 가루내어 한번에 8-12g씩 술로 먹으면 힘줄과 뼈가 잘 붙는다. 이것을 접골산(接骨散)이라고 한다[회춘].

烏雄鷄 주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 몹시 아픈 데 쓴다. 오계(수컷)의 피를 받아 술에 타서 먹고 즉시 그 닭의 배를 갈라서 상처에 싸매면 잘 낫는다[본초].

- 또는 오계의 뼈를 가루내어 40g과 자연동을 가루내서 16g을 섞어 한번에 8g씩 데운 술에 타서 빈속에 먹는다[강목].

### 3. 서양의학<sup>9)</sup>에서 활액낭염의 관점

활액낭 (bursa synovialis) 굳은 조직이 맞닿는 곳에 있으며, 활액막으로 형성되어 그 안에 활액을 담고 있는 작은 주머니로 활액포·접액낭·윤활주머니라고도 한다. 활액낭 주위는 결합조직으로 보강되어 있다. 대부분은 힘줄과 힘줄, 힘줄과 뼈, 힘줄과 인대사이, 또는 근육과 뼈, 근육과 힘줄, 근육과 인대사이, 팔꿈치 골두나 무릎뼈의 피하등에 있으며, 그 사이의 마찰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활액낭에는 구조상 단순형과 다실형이 있고, 위치상으로는 피하형·근하형·근막하형·건하형 등이 있다.

활액막 (synovial membrane) 관절·건초·활액낭에 존재하면서 활액을 분비하는 막을 말한다. 관절에 존재하는 활액막은 섬유성 관절낭, 관절내의 인대나 힘줄, 관절내의 연골로 싸여 있지 않은 골 표면을 감싸는 결합조직이며, 모세혈관이 많다. 활액막의 표층은 약간 회백색이고 또 매끄러우며, 군데군데 주름이 형

성되어 있다. 관절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제로서의 활액의 생산작용, 연골의 영양원을 매개하는 작용, 관절조직의 대사산물을 처리하는 정화작용을 한다.

활액막염(synovitis) 관절·건초·활액낭에 존재하는 활액막의 염증으로, 활막염이라고도 한다. 화농성·결핵성·알레르기성·외상성 활액막염 등으로 분류한다. 원인에는 류머티즘 등의 특이성 염, 화농성·섬유소성 등의 염증 외에 외상·타박과 지나치게 심한 운동자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관절의 활액막에 염증이 나타나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항진하여 활액 및 그 세포수가 증가하고 활액의 색조가 혼탁해져서 점조도도 저해된다. 또 활액막염은 건초염·활액낭염의 기초적 염증병소가 된다. 치료는 안정·천자배액 등이 행해지지만, 황농성에서는 절개배농·배농법·화학요법이 행해진다.

활막절제술 (synovectomy) 관절낭 내층의 활액막을 절제하는 수술로, 활액막절제술이라고도 한다. 심한 염증 증상이 있는 무릎관절을 비롯하여 여러관절에 적용되는 수술법이다. 활액막의 증식이 뚜렷한 만성 류머티오이드 관절염·색소성 용모결절성 활액막염·결핵(활액막형)·활액막성 골연골증 등에 활용된다. 염증 증상의 쇠퇴, 통증 제거에 효과가 있다. 외과적 활액막 절제외는 달리 약물을 관절 안에 주입하는 화학적 활액막 절제술이 있다. 이것은 특수한 약물 (osmic acid 등)을 관절 속에 넣어 활액막을 괴사시키는 방법이다.

### 4. 治驗例 1

신○수. 46세. 남

右膝關節의 打撲損傷,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지면 서, 膝關節 打撲 損傷. 變色을 수반한 痛症 및 浮腫 發生. 양방 응급실을 통해 방사선사진 진단 후 간단히

9)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신태양사. 서울

처치. 방사선 사진 상 滑膜의 打撲에 의한 滑液囊炎으로 診斷 됨. 그 후, 數 일 경과 후에도, 炎症의 호전 현상 없이 활액 배출에 의한 부종이 계속 됨. 양방에서 천자배액 시술 후 탄력붕대로 압박하여 2차적 부종을 방지하려 하려 하나, 계속 부기가 있고, 압박처에서 통증이 있으면, 수술 적응증이므로, 차후에 수술을 권유 한다 함. 맥은 전체적으로 긴장되고, 삼합.

上記 患者는 사고로 右膝部 打撲 瘀血이 된 患者로 整形外科에서 治療하는 중 內院하여 治療한 患者로 항생제와 소염제에 의지하였다가 한방의 조치으로 생기의 활동을 중시여겨 치료한 결과 호전 반응을 보였다. 上記 處方에서 膝痛이 비록 발병일에 10여 일 경과 하였으나, 下肢에 痺症이 나타나고, 뿐 만 아니

라 平素 全身에 大小關節痛 症狀을 호소하여, 大小關節痛 뿐 만 아니라, 損傷 된 組織이 이미 慢性化 되어 가는 시점이므로 清上通中溫下 시키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患者의 體가 燥한 것을 감안 하여 全體를 調和시키는 쪽으로 處方 하였다.

枸杞子, 當歸, 芍藥, 木瓜로 潤津液하여 患者의 全體 津液을 보존하면서, 葳靈仙, 五加皮, 玄胡索, 續斷으로 患處의 陰平을 보아 去瘀血하고, 茯神, 香附子, 蒼朮, 陳皮, 乾薑하여 中焦의 鬱과 더불어 解鬱貫中하여 精氣神을 살피고, 牛膝, 附子, 川烏 하여, 초기 10貼 투약하였습. 복약 후, 큰 호전 반응없이 단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여, 재차 10첩을 다시 투여 함. 복약중 슬관절의 浮氣와 痛症이 好轉 되어

藥 材	分 量	藥 材	分 量
枸杞子	8g	木 瓜	4g
白茯神	8g	葳靈仙	4g
白芍藥	8g	五加皮	4g
桂 枝	6g	續 斷	4g
牛 膝	6g	玄胡索	4g
尾 蓼	6g	當 歸	4g
乾 薑	4g	香附子	4g
附 子	4g	陳 皮	4g
川 烏	4g	甘 草	2g

[二次的으로 投藥한 處方]

藥 材	分 量	藥 材	分 量
枸杞子	8g	木 瓜	4g
白茯神	8g	葳靈仙	4g
桂 枝	8g	五加皮	4g
白芍藥	6g	續 斷	4g
牛 膝	6g	玄胡索	4g
尾 蓼	6g	乾 薑	4g
當 歸	6g	香附子	4g
附 子	6g	陳 皮	4g
川 烏	4g	蒼 朮	4g
川 芎	4g	甘 草	2g

藥 材	分 量	藥 材	分 量
金銀花	12g	茯 神	6g
何首烏	12g	石菖蒲	4g
牛 膝	10g	木 香	4g
免絲子	10g	川 烏	4g
桂 枝	6g	附 子	4g
尾 蓼	6g	山茱萸	4g
黃 芪	6g	大腹皮	4g
乾 薑	6g	甘 草	2g

步行에 지장이 없어짐.

그후에 疲勞, 身重感 그래고, 상처 부위의 再發을 두려워 하여, 복약을 위해 다시 20첩을 투약시킴.

5. 治驗例 2

전○성 남 52세

2000년 4월 10일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다가 넘어져 左膝을 打撲하여 他 院에서 鍼治療 및 祛瘀血劑로 추정 되는 약을 1제 복용 했음. 특별한 호전없이 5월 2일 本院에 內院했는데, 本 患者는 과거 94년에 腎虛腰痛으로 鍼治療를 받은적이 있고, 96년도에 夜甚 肘關節痛 및 평소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다고 호소하며 腰部重痛을 호소하여 함께 치료한 경험이 있음. 5월 2일 本院에 內院 할 때 洋方 整形外科에서 關節囊이 파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患處에 부종이 심하여 일주일 후 부기가 안정되면 수술하자고 진단을 받았다고함. 본원에는 수술 전 체력보강을 목적으로 내원하여 보약을 짓기를 원하였다. 본 발표자는 원기와 滑液囊을 함께 치료 할 계획으로 處方을 構成 하였다.

當時 患者는 左膝의 滑液囊이 파괴되어 부종이 아주 심한 상태 였으므로, 탄력붕대를 심하게 많이 감아 놓은 상태 였는데, 整形外科에서 시킴으로 환자는 붕대를 풀지 않고, 꼭 조여 있기 위하여 患側 다리가

變色하고,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 右側 다리에 비해 寒冷한 느낌이 있어 金銀花를, 何首烏를 君으로 하여, 牛膝, 免絲子, 木香으로 溫氣行血시키고, 桂枝, 尾蓼, 黃芪 로 生氣를 補強 하였으며, 牛膝, 木香, 大腹皮로 利水道를 보고, 茯神, 石菖蒲 로 神經을 보면서 開竅를 도모하고, 黃芪, 尾蓼, 桂枝, 川烏, 附子로 陽秘를 추구하였다.

20첩에 수술 일자되기 전에 浮氣가 없어 지고, 步行이 可能하여 거의 완치에 근접하고, 복용 7일후 정상 출근 하였음. 上方을 再次 加減없이 20첩 투약하여, 추적 조사시도 이상 없이 건강하게 보행한다 함.

IV. 結論

外傷 打撲으로 治療를 求하는 이가 韓方을 등 뒤로 하고, 洋方에 過度하게 의존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洋方的 조처 외에도 韓方 處置에서도 患者의 病變 狀態를 表證 治療보다는 本證治療 爲主가 되었을 때, 보다 더 效果의이라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洋方 治療가 患者의 苦痛을 들어주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患處에 매달려 患者의 全體의 健康을 고려하지 못 하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계통의 의약품을 제



외 하고는 手術, 穿刺 등의 對症療法 외에는  
 각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한방에서 이 분야  
 를 많이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一般的으로 東醫寶鑑 上의 處方들도 當歸鬚  
 散(入門), 乳香定痛散(醫鑑), 雙烏散(入門),  
 補損當歸散(局方) 등을 비롯한 處方들 대부분  
 이 祛瘀血, 鎮痛, 活血을 위주로 된 處方이고,  
 骨折, 筋骨折傷 등의 處方들도 接骨丹(回春),  
 自然銅散(得效), 接骨紫金丹(入門), 蔓荊散  
 (丹心) 등의 治方에도 祛瘀血, 鎮痛, 通氣行  
 滯, 溫化血分藥 등에 破血祛瘀, 接骨之劑가  
 보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素問理論은 人體를 自然의 모습에 依據를 시켜  
 治療의 主眼을 잡는데, 外傷이라도 七情, 外  
 感, 內傷과 같이, 患者의 體를 重視여기고, 患  
 者가 가지는 精氣神의 혼재를 바로 조절 케하여,  
 清上通中溫下를 治療의 大原則으로 삼고, 陰  
 平陽秘 시킴으로, 方劑의 法을 삼아, 患處의 氣  
 血의 活動과 組織體의 安定을 도모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許浚;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2. 許浚;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9
3. 蔡炳允; 漢方外科, 古文社, 1989
4. 東醫學研究所;東醫外科學, 서울 1993
5. 上海中醫學院;中醫外科學, 上海, 常務印書館,  
 1976
6. 原色最新醫療大百科事典, 서울, 新太陽社, 1994